

2020년 10월 2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매물 소화 과정 속 개별 종목 장세 스냅(+28.30%) 효과로 페이스북(+4.17%), 알파벳(+2.25%)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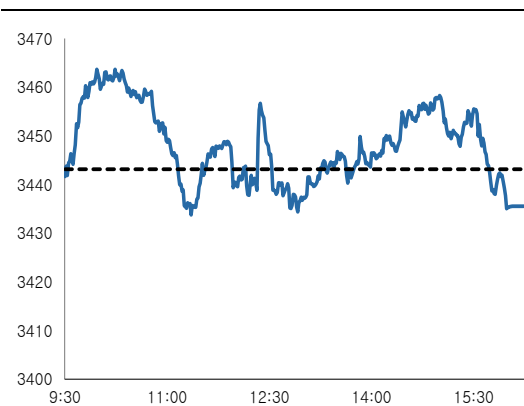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추가 부양책, 실적 발표

미 증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속에 상승 출발했으나, 대선 전 타결이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매물 출회. 다만, 스냅의 양호한 실적 발표로 광고 수익 증가 기대가 높은 페이스북, 알파벳이 강세를 보이는 등 실적 호전에 기반해 낙폭 제한. 한편, 코로나 확산과 부양책 협상을 앞두고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인 가운데 실적에 기반한 개별 기업들의 변화 폭이 컸던 점도 특징(다우 -0.35%, 나스닥 -0.28%, S&P500 -0.22%, 러셀 2000 -0.86%)

미 증시는 추가 부양책과 실적 발표의 영향을 받아 변화. 전일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언등을 종합하면 이번 주 주말까지 민주당과 백악관의 협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줌. 그렇지만 골드만삭스등은 "원칙적인 합의가 발표 된다고 해도 선거일 이전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며 부정적인 분석을 발표. 특히 공화당은 개인과 기업 대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민주당은 주, 지방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다고 언급. 한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경기 회복이 고르지 않아 재정부양책이 꼭 필요하며, 없다면 경기 하방 위험이 크다" 라고 주장. 여기에 베이지북을 통해 연준은 기업들은 긍정적인 발표를 하고 있으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고용성장이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부양책 지연으로 경기 회복 둔화 가능성을 제기. 결국 연준도 정부의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이런 가운데 개별 기업들은 대부분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보험권 등락에 그쳤음. 그렇지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6.92%), 키코프(-5.05%) 등은 급락한 반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스냅(+28.30%)의 경우는 급등. 특히 부진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경우 관련 업종으로 확산되지 않았으나, 스냅의 실적 발표는 페이스북(+4.17%)과 알파벳(+2.25%) 급등을 불러오는 등 주변부로 확산돼 긍정적인 요인의 파급력이 큰 편. 스냅은 실적 발표에서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기록적인 광고주 수와 지출 증가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해 온라인 광고 시장의 큰 폭 개선 기대를 높여 관련 기업들의 상승을 이끔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라클	Close	D-1	지수종라클	Close	D-1
KOSPI	2,370.86	+0.53	홍콩항생	24,754.42	+0.75
KOSDAQ	830.67	+0.73	영국	5,776.50	-1.91
DOW	28,210.82	-0.35	독일	12,557.64	-1.41
NASDAQ	11,484.69	-0.28	프랑스	4,853.95	-1.53
S&P 500	3,435.56	-0.22	스페인	6,811.50	-1.67
상하이종합	3,325.03	-0.09	그리스	619.98	-0.53
일본	23,639.46	+0.31	이탈리아	19,085.95	-2.0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테슬라, 시간 외로 +1% 상승 중

스냅(+28.30%)은 광고수입 증가로 인한 양호한 실적과 가입자수 증가로 급등 했다. 이 영향으로 페이스북(+4.17%), 알파벳(+2.25%), 트위터(+8.39%) 등 여타 온라인 관련 기업들도 실적 개선 기대로 급등 했다. 페이스북(+5.50%)은 플랫폼을 이용해 비트코인 구매 허용을 발표하자 급등 했고 비트코인도 7% 급등하는 등 암호 화폐도 강세를 보였다. 니콜라(+7.34%)는 GM(+0.48%)이 파트너십 계약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급등했다. 테슬라(+0.17%)는 양호한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1% 상승 중이다.

넷플릭스(-6.92%)는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가입자수 증가로 급락했다. 지방 은행인 키코프(-5.05%)는 낮은 총당금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부실대출이 증가하는 등 우려가 지속되자 하락했다. JP모건(-1.00%), 씨티그룹(-1.17%)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실대출 우려가 부각된 여파로 약세를 보였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3.12%)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전망을 언급한 여파로 하락 했다. 코노코필립스(-5.95%) 등 셰일 오일 기업들과 엑손모빌(-1.60%) 등 여타 에너지 기업들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하락했다. DR호튼(-4.46%), 레나르(-3.84%) 등 주택 건설업체들은 모기지 신청 건수 둔화 지속 여파로 약세를 보였다. 아스트로 제네카(-1.81%)는 임상시험 참가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고 화이자(-1.09%) 등도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39%	대형 가치주 ETF(IVE)	-0.33%
에너지섹터 ETF(OIH)	-1.26%	중형 가치주 ETF(IWS)	-0.36%
소매업체 ETF(XRT)	-0.65%	소형 가치주 ETF(IWN)	-0.48%
금융섹터 ETF(XLF)	-0.52%	대형 성장주 ETF(VUG)	-0.12%
기술섹터 ETF(XLK)	-0.15%	중형 성장주 ETF(IWP)	-0.8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4.89%	소형 성장주 ETF(IWO)	-1.27%
인터넷업체 ETF(FDN)	+0.41%	배당주 ETF(DVY)	-0.24%
리츠업체 ETF(XLRE)	-0.3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4%
주택건설업체 ETF(XHB)	-1.8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4%
바이오섹터 ETF(IBB)	-1.71%	미국 국채 ETF(IEF)	-0.13%
헬스케어 ETF(XLV)	-0.50%	하이일드 ETF(JNK)	-0.03%
곡물 ETF(DBA)	+0.07%	물가연동채 ETF(TIP)	-0.03%
반도체 ETF(SMH)	-0.64%	Long/short ETF(BTAL)	0.0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22.01	-1.99%	-4.09%	-3.07%
소재	411.24	-0.33%	-0.89%	+6.24%
산업재	677.92	-0.99%	-0.65%	+6.51%
경기소비재	1,238.34	-0.63%	-2.43%	+6.42%
필수소비재	672.06	+0.12%	-1.23%	+4.95%
헬스케어	1,232.76	-0.47%	-1.69%	+3.72%
금융	410.28	-0.42%	-0.31%	+6.23%
IT	2,095.83	-0.13%	-2.34%	+7.69%
커뮤니케이션	200.74	+1.29%	-0.46%	+6.07%
유틸리티	323.64	-0.21%	+0.52%	+11.45%
부동산	220.97	-0.37%	-1.15%	+5.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개별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2%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8% 상승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3.7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추가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며 협상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투자 회사들은 원칙적인 합의가 된다고 해도 대선 전 의회 통과 등 타결은 쉽지 않다고 주장해 시장에 부담을 줬다. 이런 가운데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각 종목별 변화 폭이 컸던 점도 미 증시 특징이었다. 이는 대선과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 확산 지속 등 불확실한 요인이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전반적인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는 가운데 실적 발표 등 개별 종목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결국 경제 봉쇄 확산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코로나 급증에 따른 수요 둔화 여파로 4% 급락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을 보이기 보다는 관망 속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며 미 대선 등 금융시장 주변 이슈의 변화와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 증시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와 자동차 판매 등으로 시간 외 1%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물론 상승 폭이 제한된 점을 감안 영향이 제한 될 수 있어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는 매물 소화 과정 속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 감소세 지속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 주 발표(wow -0.7%)에 이어 0.6% 감소하는 등 둔화세가 지속되었다. 재 신청 건수는 지난 주 대비 0.2% 증가했으나 그 폭은 제한 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로 4% 급락

국제유가는 에너지 정보청(EIA)이 원유 재고가 100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가솔린 재고가 예상과 달리 189 만 배럴 증가하고 정제유도 380 만 배럴 감소에 그치자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했다. 특히 유럽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며 경제 봉쇄가 확산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4% 하락했다. 더불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도 6 만건을 넘는 등 미국 또한 확산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브렉시트 관련 우호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 협상 대표가 "EU 와 협상 토대에 관해 합의 했으며 금요일부터 집중적인 협상이 매일 진행 될 것이다" 라고 발표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달러 대비 1.6%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도 이 영향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3% 강세를 보였으나 캐나다 달러, 브라질 헤알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차별화가 진행 되었다.

국채금리는 펠로시 하원의장이 낙관적인 부양책 협상전망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가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한편, 베이지북을 통해 연준은 경기 회복이 완만한 정도가 소폭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번 보다 약화된 전망을 발표한 점도 금리 상승을 제한 했다. 더불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비롯한 연준위원들은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합의 없을 시 경기 위축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줬다.

금은 달러 약세로 0.7%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도 달러 약세로 상승했으나 국제유가 급락으로 그 폭은 제한되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58% 철근은 0.66%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0.03	-4.00	-3.17	Dollar Index	92.665	-0.43	-0.77
브렌트유	41.73	-3.31	-3.67	EUR/USD	1.1856	+0.29	+0.94
금	1,929.50	+0.74	+1.16	USD/JPY	104.57	-0.88	-0.57
은	25,241	+1.04	+3.47	GBP/USD	1.3135	+1.44	+0.95
알루미늄	1,843.50	+0.49	-0.46	USD/CHF	0.9056	-0.17	-0.89
전기동	6,991.50	+1.34	+4.10	AUD/USD	0.7116	+0.96	-0.64
아연	2,568.50	+1.54	+6.27	USD/CAD	1.3150	+0.16	+0.03
옥수수	413.75	+1.22	+4.35	USD/BRL	5.6081	+0.04	+0.28
밀	629.75	-0.36	+5.53	USD/CNH	6.6451	-0.27	-0.98
대두	1,071.50	+0.73	+1.35	USD/KRW	1131.90	-0.66	-1.31
커피	104.15	-0.71	-4.97	USD/KRW NDF1M	1133.72	-0.48	-1.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818	+3.18	+9.19	스페인	0.202	+2.10	+6.80
한국	1.520	+5.50	+0.80	포르투갈	0.181	+2.20	+5.30
일본	0.035	+1.30	+0.30	그리스	0.909	+6.60	+14.40
독일	-0.588	+1.80	-0.70	이탈리아	0.780	+5.30	+12.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